

광주 다중이용시설도 화재 위험 노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등으로 다중이용시설 화재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 지역 목욕탕과 스포츠센터 등도 화재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광주시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제천 노블웨트니스와 화재 직후인 지난달 26부터 29일까지 광주 지역 유사 건물 53곳과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 56곳 등 총 109곳을 대상으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했다.

유관기관 합동으로 관련 전문가 등 10개 반 40명이 투입된 이번 특별조사에서 전체 조사대상 34.9%인 38곳이 소방법령 위반으로 적발됐다.

광주소방본부, 특별조사 38곳 불량 비상구 폐쇄·소방시설 불량 등 심각 “목욕탕 등 화재 안전지대 아니다”

이번 조사 결과 38개 업소에서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방화구획 훼손, 피난유도등 미설치, 건축물 인의 증축 등 114건에 달하는 위법사항이 드러났다. 분야별로는 피난설비 51건, 소화설비 24건, 경보설비 22건, 전기·가스·건축 17건 순이다.

이 가운데 비상구를 폐쇄한 2곳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방화구획 훼손이나 건축물 인의 증축, 내부구조 변경, 전기·가스시설이

불량한 14곳은 기관통보했다. 나머지 피난유도등 점등불량이나 감지기 탈락, 스프링클러 헤드 불량 등에 대해서는 원상복구토록 시정 명령을 내렸다.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다중이용시설의 화재를 막기 위해 자동유리문 수동조작 방법 표지 부착, 목욕탕 등 관계자 긴급 소방안전교육 실시, 여성 전용공간 소방점검 시 여성인력 편성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필로티 주차장에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고 필로티 건축물의 주출입구를 도로면에 접하도록 설치토록 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도 건의할 계획이다.

김조일 광주시 소방안전본부장은 “다중복합시설은 내부 구조가 복잡해 화재가 발생하면 연기로 인해 비상구를 찾기 매우 어렵고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며 “며 “건물 관계자는 피난통로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소방시설 정상 작동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광주지역 일반 찜질방과 목욕장 276곳에 대해서도 오는 12일까지 전수 점검할 예정이다.

서은홍 기자

중동부 해안 화재 이란 유조선, 폭발 위험

지난 6일 밤 중국 동부 해안에서 화물선과 충돌한 후 화염에 휩싸인 이란 유조선이 폭발 후 침몰할 위험에 처했다고 중국 관영 언론이 8일 보도했다.

현재 한국과 미국, 중국 3개국이 실종된 32명의 선원을 찾고 오염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국 국영 CCTV는 중국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8일 오전 8시 현재 30명의 이란인과 2명의 방글라데시인 등 실종된 32명 중 단 한 명도 찾지 못했다고 전했다. 게다가 맹렬한 화염과 맹독성 가스로 구조 및 오염 확산 방지 작업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파나마 선적의 이란 유조선 산치호는 이란을 출발해 한국으로 가던 중 홍콩 선적 화물선 CF 크리스탈호와 상하이에서 257km 떨어진 해상에서 충돌했다. 중국 교통부는 밝혔다.

곡식을 싣고 중국에서 미국으로 향하던 크리스탈호의 승무원 11명은 모두 구조됐다. 이들은 모두 중국 국적이다.

충돌 원인은 즉각 밝혀지지 않고 있다.

산치호에는 100만 배럴 가까운 15만톤의 콘테이너(초경질유)가 실려 있었다고 중국 당국은 밝혔다.

산치호는 아직도 불타고 있으며 주위에는 새어나온 기름들이 보인다. 산치호는 이란 NITC사 소속이지만 한국 한화그룹과 프랑스 토탈 그룹이 50대 50으로 출자한 한화토탈에 임대돼 운영돼 왔다.

일본 교토 해안서 북한 어선 추경 목선 발견

일본 교토부(京都府) 교탄고시(京丹後市) 앞바다에서 북한 어선으로 추정되는 목조선이 발견됐다고 8일 NHK가 보도했다.

교토부 마이즈루(舞鶴) 해상보안청에 따르면 전날 오전 교탄고시 해안 산책로를 걷고 있던 한 남성이 앞바다에 전복되어 있는 소형어선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조사한 결과 약 10미터 길이에 폭 3미터의 목조선 1척이 함비가 가리앉은 상태로 전복돼 있는 것이 확인됐다.

경찰이 선체를 두들기며 생존자를 확인했지만 반응이 없었으며 승무원도 발견하지 못했다. 하지만 주변 해안에서 한줄이 적혀있는 나무 판자가 발견됐으며, 또 최근 니가타(新潟), 아키타(秋田) 등의 지역으로 연달아 떠내려온 북한 목조선과 크기 등도 비슷해 해상보안청은 이 목조선이 북한에서 표류한 어선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하고 있다.

호주 시드니에 80년만의 폭염...최고 47.3도

호주 남서부 일대에 폭염이 강타, 시드니의 한 여름 기온이 최고 47.3도까지 치솟으면서 1939년의 47.8도에 버금가는 대 기록을 세웠다.

북반부에서는 미 동부해안에 최악의 눈폭풍과 한파가 몰아닥쳐 최소 22명이 사망한 것과 대조적으로, 호주에서는 폭염으로 인해 수 천 세대에 전기가 끊기고 소방당국이 화재 경보를 발하는 등 뉴사우스 웨일스주 일대에 비상사태가 선언되었다.

뉴 사우스 웨일스 경찰의 케서린 번 경찰청장은 “극심한 열파와 폭염에 대비하기 위해 주 정부의 폭염대피 계획이 가동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국은 주민들에게 물을 평소보다 더 많이 마시도록 권하고 있으며 열파로 인해 발생한 대기 오염에 대비해 야외활동을 삼가하도록 경고하고 있다.

시드니와 그 주변 지역에는 불을 지피는 행위 자체가 아예 금지되는 1급 화재 경보가 내려졌다.

이란, 초등학교 영어교육 금지키로

이란 정부가 '서구 문화의 침공'을 막아야 한다고 하며 초등학교 영어 교육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란 고등교육 위원회의 메흐디 내비드 아드함 회장은 7일(현지시간) 국영 TV를 통해 “공립 또는 사립 초등학교에서 영어 교육을 공식 학습 과정에 포함하는 건 위법”이라고 밝혔다. “초등교육의 기반은 파르시(이란어)와 이란 문화 증진이 돼야 한다”며 이번 결정은 서구 문화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란의 영어 교육은 일반적으로 중학교 때 시작되지만 일부 초등학교는 영어를 가르치고 있다. 방과 후 영어 사교육을 받는 학생들도 있고, 부유층 어린이들은 아예 영어 수업이 있는 사립학교를 다닌다.

검찰, 박근혜 재산 추정보전 명령 청구

검찰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36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재산에 대해 추정보전 명령을 청구했다. 추정보전 명령은 몰수나 추징을 피하기 위한 재산 도피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려고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결정하는 조치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8일 국정원 뇌물 및 국고손실 사건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 재산에 대해 추정보전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문고리3인방'으로 불렸던 최추근 이태준 안봉근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과 이병기, 남재준 이병호 전 국정원장들과 공모해 국정원 특수활동비 36억5000만원을 상납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상납받은 자금을 최순실씨 등이 사용한 차명론 요금, 삼성동 사저관리비용, 기지료·운동치료, 문고리 3인방의 관리 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했다.

또 일부는 '문고리3인방' 보좌관들에게 지급했고, 자신의 전용 의상실 운영에 들여간 돈 6억9100만원 중 일부를 증정하는 데 썼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해 3월23일 공개한 '2017년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은 37억3820만원이었다.

뉴스스



화천산천어축제 호국이 인기 '짱' 육군 7사단 장병들이 8일 강원 화천산천어축제장에서 호국이 인형탈을 착용하고 관광객들을 안내하던 장병이 휴식 시간에 얼음썰매를 즐기고 있다.

광주 문화예술단체 “亞문화전당장 조속 선임” 촉구

광주지역 문화·예술단체가 8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 선임 5차 공모마저 무산된 것에 대해 “이전 정부와 다름없는 모습이다”며 “문화전당장을 조속히 선임해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역문화교류추진재단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최근 정부는 문화전당장 5차 공모도 ‘적격자가 없다’는 이유로 무산시켰다”며 “이는 보수정권 10년 동안 망가진 문화전당의 정상화를 기대했던 지역의 입장에서 당혹스러울 수 밖에 없는 조치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체부가 정상적인 공모 절차를 거쳤음에도 지역 여론을 핑계로 전당장 5차 공모를 무산시킨 것은 공모 무산의 책임을 지역으

로 떠넘기기 위한 면피용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문화전당 활성화는 발판으로 지역을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만들기 위한 조성사업의 정상화까지 어렵게 하고 있다”며 “정부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 한국문화기술(CI)연구원 설립이 빠졌으며 대신 시기에 공약한 조성사업의 정상화 방안도 대거 누락된 것인 반증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성위원회 위원장도 지난해 3월부터 공석이며 7기 조성위원회 구성도 오리무중이다”며 “문화전당의 운영과 콘텐츠 구축 업무를 위탁받은 아시아문화원 원장도 지난해 10월에 임기가 만료됐지만 후속조치도 없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민족예술단체총연합회와 작가회의 등 20여개 문화·예술단체도 공동성명을 통해 “정부가 문화전당장 선임 절차를 잠정 보류하기로 결정한 것은 이전 정부에 의해 왜곡된 결과를 바로잡는 진일보한 조치로 평가된다”며 “문화전당장 선임 절차를 시민사회와 공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차레의 공모과정 동안 난항을 겪어야 했던 근원을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며 “문화전당에 투영돼 있는 5·18의 정신을 문화적으로 고양하고 세계적 확장을 도모하고자 한 건립 철학과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자격 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남규 기자

다들, 안녕하시죠?

우리 날령은요...
양치로 죽어 있습니다.

다들 건강검진으로 조기발견해서 수술도 받고,
아직 3개월에 한 번 검사만 받으면 될 정도로
가벼워졌습니다.

돌이켜 보면
늦치고 지내, 그래서 잇고 지내 시간들을 반성하게 됩니다.

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란 말을 다시 돌아봅니다.

다들 안녕하시죠?

일반
건강검진

생애건강기
건강검진

구강
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임
검진

발생률이 높고 조기진단으로 치료할 수 있는 5대 암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을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합니다.

*연말에는 검진기간이 혼잡하오니, 미리 미리 검진 받으세요.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 동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함께 합니다

국가건강검진

보건복지부

h-well 국민건강보험

[문의처 129] [고객센터 1577-1000]